

2021년 2월

중어중문학과 졸업논문

『삼국지연의』 속에서 나타나는
관시(關係) 유형 분석

전공: 중어중문학

학번: 17

목 차

I . 서론	1
II . 본론	3
1. 판시의 유형 분석	3
1) 판시의 개념	3
2) 판시의 특징	4
3) 판시의 유형	7
2. 『삼국지연의』 시대 속의 판시	9
1) 난세	10
2) 한실의 권위	12
3) 능력 본위의 사회	13
3. 『삼국지연의』 주요 인물 간 나타난 판시	14
1) 유비의 판시 사례	15
2) 조조의 판시 사례	17
3) 유비와 조조의 판시 유형 비교	19
III . 결론	20
IV . 참고문헌	22

I. 서론

중국은 그 역사가 오래 지속되어온 만큼, 무수히 많은 키워드들이 중국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분열과 합일을 반복하며 패권을 다툰 영웅들과 그 이야기를 담은 삼국지 역시 중국을 상징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중국을 넘어서 동양 전체의 의식 속에 녹아있다. 그 일례로 삼국지에서 파생된 고사성어 ‘삼고초려(三顧草廬)’, ‘계륙(鷄肋)’, ‘읍참마속(泣斬馬謖)’ 등은 흔히 사용되는 관용구로서 오늘날 일상생활 속에 깊이 침투해 있으며, 만화 삼국지를 보며 자라는 세대들이 다수 존재하고, 삼국지를 핵심적인 테마로 개발된 게임들이 수년에 걸쳐 거듭 제작되면서 상당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그야말로 불후의 동양고전이자 동양 전체를 관통하는 텍스트인 셈이다. 이처럼 소설 삼국지가 주변의 여러 동양권 국가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을 때, 삼국지의 실제 지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이보다 더욱 강력한 영향을 받았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나관중이 엮은 소설 삼국지의 본 명칭은 ‘삼국지통속연의’이다. 화본이나 설화로 민중들의 입을 거쳐 전해지던 역사적 이야기를 정리하고 새로이 엮어 그간의 개작이 축적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개작을 거치며 삼국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시대상이 반영되어, 독특한 인물상과 두드러지는 각자의 개성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삼국지연의』의 평가에 있어 정통론에 입각해 인물 전형을 왜곡하여 표현하는 등, 『삼국지연의』가 왕조 정통 사상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다는 논쟁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 소설화되는 과정 속에서 작자의 관념적 의도가 작중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은 고소설(古小說)의 일반적인 특징¹⁾으로, 『삼국지연의』 역시 저술되는 과정에서 축한정통론을 기반으로 하여 유비의 집단을 영웅처럼 표현한 반면, 조조의 세력을 감동을 촉발하는 악인처럼 묘사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물의 전형성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상적인 인물상, 바람직하지 못한 인물 전형이 무엇인지 오늘날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러 인물 군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유형을 살펴보고 인간관계의 본질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난세로 불리던 삼국시대에, 유비와 조조를 포함한 다양한 인물들은 비단 다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력을 견제하고 전략을 간파하고자 서로를 파악하려는 의도의 집전을 해왔으며, 때로는 필요에 따라 상대에게 의탁하거나 동맹을 맺는 등 수많은 관계를 만들어왔다. 또한 전투에 있어서도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인재 등용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휘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신뢰를 표하면서도 혹시 모를 배신에 대응하여 부하의 충절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역시 다층적인 차원의 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오늘날 흔히 알고 있는 고사성어인 ‘삼고초려’ 또한 유비와 제갈량 사이의 군신관계가 형성된 계기를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지연의』에서는 군신관계 외에도 다양한 관계의 유형들이 나타난다. 유비, 관우, 장비가 모여 의형제를 맺은 ‘도원결의’는 유사 가족의 관계가 형성된 예라고 할 수 있으며, 유비와 노식은 사제 관계를 나타내는 예시로 볼 수 있다.

각각의 진영들이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분투하며, 인재들이 능력을 펼치기 위해 의탁할

1) “한편 古小說에서의 인물은 미리 작자의 심중에 그려져 있는 관념이 작중 인물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혹자는 이것을 ‘성격의 외인화’라는 말로 부르기도 한다.” (조관희, 「삼국지연의 『三國志演義』에서의 류비(劉備)의 인물(人物) 형상(形象)」, 『人文科學』 제78권, 1997, p.2.)

자리를 찾아 헤매고, 적과 아군 사이에서도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삼국지연의』 속 인물들의 모습은 오늘날의 경쟁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간 관계와도 흡사한 부분이 많다. 이는 사회의 양상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더라도 그 사회의 기반이 되는 '사람'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특성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사회적 속성이다. 그 일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제1권에서 인간의 본질과 관련하여 "인간은 본성에 의해 정치적 동물이다"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동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해석의 여지는 학자마다 다분하지만, 대체로 자기보존, 종족보존이라는 생물학적 존재조건²⁾과 더불어 자아실현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와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해당 명제를 삼국지연의 속 인물들의 관계에 적용해보더라도 황건적의 침입에 대항하여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병사를 모으고, 세력 다툼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투를 이어가며, 천하 통일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고자 마음이 맞는 인물들과 결기하는 모습은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 특성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며 쌓는 사람 사이의 관계, 대인관계를 가리키는 말로 오늘날 중국에서는 판시(關係)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흔히 판시라는 말은 사업이나 경제 활동 상에 발생하는 연줄이나 유대 관계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협의의 의미에서 판시는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인맥을 동원해 호의를 얻는 것을,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하여 단순한 대인관계나 우정 그 이상의 것을 나타낸다. 즉 일반적으로 외부인이 받아들이는 관계(relationship)과는 다른, 복잡한 개념을 가진 중국의 독특한 사회 관행이 바로 판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중국만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에서도 역시 한국의 '정(情)', 일본의 '간게이(關係) 및 렌코(緣故)', 러시아의 '블라트(Блат)'³⁾ 등 개인적 친분에 근거한 사적인 유대관계를 일컫는 용어가 존재한다. 하지만 판시는 그 자체로 중국사회를 유지시키는 기제이자 목적⁴⁾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사회 현상을 나타내며, 중국만의 특수성을 드러낸다. 대인간에 맺어지는 관계를 칭하는 용어가 국가별로 상이한 것처럼, 연고가 생성되게 된 연유 또한 국가에 따라 상이하다. 이러한 변화를 낳은 것은 나라마다 사회구조와 문화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람 간의 관계의 특징, 본질, 작동원리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이한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문화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4대 기서로서 중국 문화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삼국지연의』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오늘날 중국 사회 구조의 중심에 있는 판시를 문화적 텍스트 『삼국지연의』에 적용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판시의 일반적인 정의와 개념을 살펴본 후, 판시 내에 존재하는 특성을 분석하여 정리하고, 판시에 대한 일반론 및 학자들의 판시 유형 분류법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삼국지연의』의 시대적 배경 속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판시와, 『삼국지연의』의 주요 인물들 사이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판시 사례를 유형에 따라 정리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2) 한상수,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론: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 『성균관법학』 제19집, 2007, p.12.

3) 오강돈, 「오강돈의 중국 마케팅 (75) 중국과 러시아 <34>」, 『조선비즈』 2019.07.2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3/2019072301283.html(2020-11-20접속)

4) 최은영, 「중국 판시(關係)문화의 의미와 그 변용」, 『담론201(Discourse 201)』 제10권 2호, 2007, p.260.

II. 본론

1. 판시의 유형 분석

1) 판시의 개념

‘판시’는 혈연, 부부, 친척,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등의 연고관계나 지역관계 등에 기반하여 맺어진 관계 내지는 인맥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중국인들에게 판시는 일종의 행동 규범으로 작용해오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친숙한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녹아들었다. 따라서 판시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중국인의 행동 양식과 심리 구조를 이해한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로 통한다. 판시는 중국의 인간관계와 사회구조 전면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원리이자 사회관계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판시는 수천 년 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오며 최근의 관계중심 사회를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판시가 외부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중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현상이라 불리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수천 년이라는 시간적,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중국 유교주의라는 정신적인 배경까지 다양한 층위의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하여 판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판시는 오랜 세월동안 중국 사회에 존재해왔다고 하지만, 중국인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느껴진 까닭인지 판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판시라는 용어가 사전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시기 역시 상당히 최근의 일로, 권위 있는 중국어 사전인 『詞海』나 『詞源』에서는 판시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최근에 들어서야 판시 용어를 담은 중국어 사전이 출판되면서, 판시의 사전적인 어원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시의 세부적인 뜻풀이를 살펴보자면, 판시(關係)의 관(關; guan)은 문(門)을 뜻하여 ‘어떠한 조직에 속하다’를 의미한다. 만약 이것을 ‘문을 닫는다’는 뜻으로 의미를 확장한다면, 문 안에 있을 경우에는 집단의 구성원에 속하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에는 외부인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⁵⁾ 또한 關은 관심(關心), 관회(關懷)에서 볼 수 있듯 애정을 갖고 염려하다, 애정 어린 관심을 주다 등, 호의를 기저에 두고 있다는 것에서 구성원에 대한 호의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係; xi)는 ‘관계를 맺어 확장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관계를 유지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⁶⁾ 정리하면 판시는 자신을 중심으로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과의 유대관계, 연결망을 뜻한다.

비교적 명확한 판시의 사전적 정의와 달리, 판시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상이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 판시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의 주장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판시 문화가 유교적 윤리강령과 가족주의란 전통 문화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고 두 번째는 20세기 이래로 개혁개방을 겪은 후 분배구조의 변화가 판시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때 후자의 경우를 간략히 설명하자면 중국의 공산주의식 분배체계에 따라, 분배를

5) 위의 논문, p.260.

6) 조평규, 「중국의 판시(Guanxi, 關係)」, 『철학과 현실』, 제125권, 2020, p.74.

담당하는 단위 간부들에게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간부를 중심으로 한 관시, 특히 후원자와 수혜자 관계를 나타내는 연줄이 발달했다는 내용이다. 물론 오늘날 중국사회와 경제체제 내에서 널리 통용되는 관시의 의미는 서로에게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상호 호의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후자의 설명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중국 전체를 관통하는 인간 본연의 상호작용 습성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전자의 관점에 따라 가족주의 문화, 유교를 관시의 근원으로 보도록 하겠다.

관시가 중국의 본질적 전통, 중국문화에서 기원했다는 주장, 일명 문화론을 언급한 중국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梁漱溟이 있다. 양수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시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언급하며, 인간은 탄생과 동시에 부모 형제의 관계에 놓이게 되어 시종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회를 벗어날 수 없는 개인은 타인과 어울리는 가운데 장성하여 또 다른 관시, 예를 들어 부부의 연이나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부터 윤리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단순히 혈연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회관계로 확대하더라도, 교단의 사제관계와 정치에서의 군신관계, 그 밖의 친우관계나 이웃관계 등 사람은 關係를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윤리에 따라 어울려야 함을 말하고 있다. 즉 현실적인 측면에서 관시에 접근하기보다 전통적인 유학의 측면에서 관시에 접근함으로써, 사람이 도덕적으로 따라야 할 관시의 이상을 제시하고 전통과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金耀基는 유교에서 나타내는 ‘己’의 자주성에서 착안해 중국인의 관시를 설명했다.⁷⁾ 유교는 ‘己’에 자주성을 부여하는데, ‘爲仁由己’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유교 문화에서의 이상인 仁을 이루는 것은 다름 아닌 ‘己’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이다. 유교에서 뜻하는 ‘己’란 중심인 자아로서 피아를 구별하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관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다. 앞서 본고에서 관시의 정의에 대해 ‘자신’을 중심으로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과의 유대관계, 연결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金耀基의 주장을 살펴보면 ‘己’를 중심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며, 개별 ‘己’마다 그 관계의 형태와 모양이 다르고, ‘己’의 감정(인정)과 판단에 따라 관계를 맺은 타인 사이에서도 관시의 순서, 차등이 다르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교원리에 입각해 관시를 분석했을 때, 분배구조에 따라 관시의 개념이 발생했다는 관점에서보다 더욱 광의의 의미를 가진 관시의 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직적 관계의 관시는 기업 구조와 일치하여 거래 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다소 어색한 부분이 있다. 나아가 관시가 표방하는 중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중국의 문화적 기반인 유교를 중심으로 관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관시의 특징

관시의 특징은 자기중심성, 교환성, 중복성, 양도성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징인 ‘자기중심성’을 살펴보면, 관시는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己’, 즉 관시의 중심에 있는 주체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는 지극히 사적인 차원의 관계이다. 가장 기본적인 관시인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은 ‘우리’를 강조하여 집단적인 성향을 가지는 한국의 가족 형태에 비해, 자주성을 가진 ‘己’를 중심으로 하므로 보다 독립적인 경향을 띤다. 이때 ‘己’란 서양에서 사용하는 독립된 개인의 개념이라기보다, 家

7) 정하영, 「중국의 ‘관시’ 문화에 대한 시론」, 『中國學研究』 제0권 27호, 2004, p.359.

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자주성을 갖는 개체를 말한다. 그 일례로 순수한 혈통, 혈연에 대해 맹목적인 정서 내지는 강제성이 있었던 한국과 비교하여, 중국에서는 혈연에 대한 선택성이 존재했다.⁸⁾ 이는 곧 중국의 판시에서는 혈연에 따른 집단의 자연적인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己'의 의사에 따라 감정의 조작화가 가능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를 정식 학문으로 연구한 費孝通의 저작 『향토중국』에 따르면 집단이라는 골격이 먼저 만들어진 후 개인이 공동의 테두리에 의지·편입되는 형태인 서양식 판시 '團體格局'과 달리, 중국에서는 안정된 향토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들이 필요시에만 타인과의 판시가 발생했다. 따라서 항시적인 단체의 필요성이 적은 중국 향토사회의 구조에서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상이한 형태의 판시를 맺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유대관계에 익숙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중국인들이 집단적인 관계보다는 자기중심성에 근거한 판시, 자기 몫을 우선시하는 중국 특유의 자주적 판시 특징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였다.

판시의 두 번째 특징은 '교환성'이다. 중국의 판시(關係)에서는 한국의 연줄처럼 상호간의 호의, 우호적인 감정을 교환하는 인간적인 교류와 이익을 주고받는 호혜관계가 작용한다. 양자 모두 사회연결망의 일종으로 다른 행위자와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는 문화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사적인 차원의 교제 관계를 말하므로 규정된 형태를 띠지 않고, 변화하는 동태적 상태에 있다는 점 역시 정(情)과 판시의 공통점이다. 하지만 판시는 교환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연고와 차이점을 가진다.

자세한 비교를 위해 한국의 연고를 분석해보자. 한국의 '정(情)' 또는 '연줄'은 주로 3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 혈연과 학연, 지연이 바로 그것이다.⁹⁾ 혈연의 중심에 있는 것은 '문중'으로, 문중은 공동체의 재산을 기반으로 상부상조를 실현해 왔다. 이때 단순히 개인, 자신만을 위함이 아닌 문중이라는 공동 조직체 전체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학연에 있어서도 구성원들은 개인의 몫보다 조직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연이라고 할 수 있는 선후배 관계에서 선배는 공동체에 편입된 후배를 위해 정보, 사회적 자원 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물론 선후배 관계가 일방적인 후원자-수혜자 관계인 것만은 아니다. 후배는 조직 내 연장자인 선배에게 후원에 대한 일종의 보답으로 존경심을 드러낸다. 하지만 선후배 관계에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유형 혹은 무형의 도움을 제공하는 '내리 사랑'의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성은 후배가 다음 후배에게 사회적 후원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그들이 공통으로 속한 공동체가 사회 내에서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직장에서도 주요층 인사들이 학벌 중심의 연고를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학연의 주 목적 역시 학벌 집단의 사회적 자본 생성¹⁰⁾을 통한 조직 전체의 향상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연은 한국에서 주로 '지역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단적인 예로 선거 투표 기간에 유권자들이 같은 고향 출신자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형태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말하는 '연줄'이란 관계의 중심에 있는 개인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조직 전체를 위하는 형태를 띠며, '정(情)' 역시 감정적인 헌신에 기반하고 있어 무대가성을 지닌다.

반면 판시는 양자 간 은혜교환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판시 구

8) 위의 논문, p.367.

9) Xiao Ling Wang, 「'연줄'과 '판시(關係)'의 차이: 한국과 중국의 사회연결망 비교」, 『社會科學研究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3 No.2, 2007, p.19.』

10) 김용학, 「한국 사회의 학연: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자본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2003, p.55.

축과정에서 많은 중국학자들은 ‘인정’과 ‘면자’의 개념을 사용한다.¹¹⁾ ‘인정’이란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은혜 혹은 호의를 말하며, ‘면자’는 한 사람의 명예를 의미한다. 이때 ‘인정’은 일종의 의리 성분이 첨가되어 있다. 판시에 담긴 의리라는 정서는 일반적인 친우 관계를 의형제로 만드는 역할을 하며, 증여자에게 받은 인정에 대해 더욱 크게 보답해야 한다는 의식을 형성해 상호관계가 더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된다. 이때 양자 간 호의를 교환하는 행위는 반드시 즉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한 쪽에서 인정을 증여했을 때 여유에 따라 시간을 두고 대가를 갚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대가성은 서양의 관계(relationship)에서도 드러나는 특징이나, 서양은 관계의 보답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지속성을 가진다. 이에 비해 판시는 보답의 시기가 보다 유연하므로 비교적 장기적인 지속성을 띤다. 이처럼 판시는 감정적 헌신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연고와 비교해, 상호간에 대가를 주고받는 대가성을 지니므로 교환성에 차이를 가진다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특징은 ‘중복성’이다. 판시의 중복성은 다른 말로 확장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서 판시는 자기중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주체 ‘己’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곧 ‘己’가 얻는 이익에 따라 판시가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한다. 중국 향토사회라는 기반 위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타인과 판시를 맺으며, 느슨한 관계망을 유지하였다. 이 느슨한 관계망은 강제성을 띠지 않았으며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형태를 취했다. 따라서 중국 향토사회 내에는 개별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판시가 등장할 여지가 충분했고, 개인은 하나의 집단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수의 조직에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했다.

현대 중국에서 말하는 판시 역시 한 조직 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종사하는 직종에 따라 한 집단(이 경우 직장, 기업 등)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판시는 복합적인 층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개인이 복합적인 아이덴티티, 자기중심성을 기반으로 하는 ‘己’의 자주성을 지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에서는 “판시만 있고 조직이 없다”고 한다.¹²⁾ 상호 호혜성과 신뢰를 통해 유지되는 판시의 특성상, 판시는 집단이라는 경계를 초월하여 형성되는 성질을 가지며 공통 집단이 요구하는 보편적 규약이 존재하지도 않는 사적인 차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단에 비해 더욱 강력하다는 성향을 띤다. 이에 따라 판시는 ‘己’의 현실적인 이익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든 확장이 가능하여 다양한 조직에 걸쳐 존재할 수 있다는 중복성을 가지고 있다.

판시의 마지막 특징은 ‘양도성’이다. ‘己’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판시는 조직 여부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확장성에 기반하여 판시는 그 관계 자체가 양도될 수 있다는 성질을 가진다.

판시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자’는 곧 체면을 의미한다. 제한 없이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판시는 그 형태가 ‘己’에 따라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다양한 판시 형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직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관계망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이 납득 가능할 수 있는 대인관계의 기준이 필요했다. 중국 전통적인 윤리강령인 유교 원리에 입각했을 때, 도덕적인 토대이자 ‘己’의 자주성을 충족하는 좋은 기준은 바로 체면이었다. 사회적인 관계망에서 체면은 질서를 수립하는 핵심 요소로서 기능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도덕적 제약요인으로 전통사회 속 유교원리를 승화한 기준으로 존재했으며, 다양한 ‘己’

11) Xiao Ling Wang, 「‘연줄’과 ‘판시(關溪)’의 차이 : 한국과 중국의 사회연결망 비교」, 『社會科學研究』(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3 No.2, 2007, p.19.

12) 정하영, 「중국의 ‘판시’ 문화에 대한 시론」, 『中國學研究』 제0권 27호, 2004, p.374.

가 자주성 문제로 충돌하지 않고도 공존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체면의 상실은 곧 관시의 해체를 의미하며, 특정한 연결망으로부터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했기에 판시라는 사회적 연결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판시 참여자들의 헌신을 유발했기 때문이다.¹³⁾ 이에 타인과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증거인 판시가 곧 체면이 되는 동시에, 판시 내에서 체면이 판시 형성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오늘날 중국인들이 체면이 설 때 개인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는 사회적 이미지를 가지는 것¹⁴⁾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체면이라는 기준 하에 중국인들은 자신의 ‘면자’를 잃지 않기 위해 판시의 자유로운 확장을 지양하면서, 타인의 평가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 과정에서 판시의 ‘중개인’이 등장하였다.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중국의 특성상, 거래를 하게 될 때에는 불필요한 간접적인 비용이 부수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이었다. 판시의 중개는 이러한 부수적 거래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불확실성의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중개인을 통한다면 직접적으로 판시를 형성하는 데에 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감축할 수 있고, 사회적인 체면으로 연결되는 판시의 특성상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B, C라는 인물이 A-B, A-C 라는 판시 관계를 가진다고 했을 때, B와 C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관계는 아니지만 A라는 인물의 판시 내에 존재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때 A가 판시 관계에 있는 B와 C 사이에서 중개인으로 기능하며 서로를 이어준다면, 이는 A가 가진 판시 관계가 양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라는 인물의 체면을 근거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B와 C는 단순한 relationship을 맺은 것이 아니라, 판시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처럼 체면이라는 사회적 신뢰 장치를 내재한 판시는 더욱 넓게 확장되면서 중개인, 소개를 통해 관계 자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양도성을 가지게 되었다.

3) 판시의 유형

판시는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상호간 유·무형의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때 개인은 하나의 조직에 속해 분절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여러 조직에 걸쳐 판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중복성(확장성), 그리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판시를 더욱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을 통해 관계 자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양도성을 가진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판시의 특징에서 볼 수 있듯이, 판시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친교를 다지는 원리로 작용하는 한편,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생성될 수 있다.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시에 그 목적이 다르면, 나타나는 판시 형태 또한 다르기 마련이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보더라도 친교 목적에서 비롯된 관계는 이웃, 친구 등으로 나타나며 그 형태 역시 동아리, 친목 단체와 같은 반면, 이익에서 비롯된 관계는 직장 동료, 상사 등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사이에는 효(孝), 친구 사이에는 신(信), 군신 간에는 충(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 사이에는 인(仁)을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관계 원리이자 다양한 성격의 판시이다. 나아가 판시는 장기적인 지속성을 지닌다. 판시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도 ‘己’가 두는 타인의 차등 순서는 변화할 수 있다. 상호 신뢰 혹은 누적되는 교환의 원리에 따라 판시의 결속이 더욱 강화되는 경우가

13) 최은영, 「중국 판시(關係)문화의 의미와 그 변용」, 『담론201(Discourse 201)』 제10권 2호, 2007, p.268.

14) 박상수 외, 「중국 기업인들에 있어서 중국식 사회자본의 역할: 판시(Guanxi)와 신용(Xinyong)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40권 3호, 2016, p.73.

있는 반면 심리 상태에 따라 관시가 약화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이처럼 다양한 형상으로 존재하는 관시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자들이 분석한 관시의 기존 유형을 살피고, 분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주목할 만한 학자로, 관시를 다차원적 관점에서 분석한 黃光國이 있다. 황광국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가진 사회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분화되는 ‘심리상태’를 기준으로 관시의 유형을 세분화하였다.¹⁵⁾ 그는 관시를 크게 ‘정감성 관시(expressive ties)’, ‘도구성 관시(instrumental ties)’, ‘혼합형 관시(mixed ties)’로 분류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감성 관시’는 그 자체로 관계의 목적이 된다. 이 종류의 관시에는 가장 기본적인 안정된 사회관계인 가정과 막역한 친구 등이 속하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에서 안정감, 온정, 귀속감 등의 정감을 얻을 수 있다. 가정에서 사회자원, 각자가 필요한 자원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함께 향유하는 것처럼 ‘정감형 관시’에서는 구성원들이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도구형 관시’는 용어 자체에서 볼 수 있듯 도구의 목적으로 형성된 관계를 말한다. 가정에서 벗어난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 주로 물질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이처럼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계가 바로 ‘도구형 관시’이다. 서로가 수단화되는 관계 사이에서는 교환성이 두드러지게 되는데, 이때의 교환성은 점차 누적되는 ‘인정’을 주고받는 관시의 교환성과 차이를 보인다. ‘도구형 관시’에서는 철저한 등가교환의 원칙이 기저에 깔려있다. 즉 지불한 만큼만의 대가를 상대방에게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혼합형 관시’이다. 이는 위의 ‘정감형 관시’와 ‘도구형 관시’가 복합적으로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시에 속한 구성원들은 일정한 정감을 공유하면서도 서로를 완전히 개방하지는 않으며, 체면을 고려해 일부 꾸며낸 모습을 보이게 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楊中芳이 분류한 관시의 유형이다. 양중방 역시 사람간의 교류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시의 분류 기준으로 ‘도구’와 ‘감정’ 성분을 들었다. 이때 황광국의 관시 분류와 다른점이 있다면 양중방은 도구와 감정 성분에 더하여 상호 왕래의 시점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온 상호 연계성인 ‘기유’ 성분의 관시를 분류했다는 점이다. ‘도구’와 ‘감정’ 성분의 관시도 위의 분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황광국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도구형 관시’는 상호 친밀감이 배제되어 단순히 서로를 수단화하는 관계이지만, 양중방의 ‘도구’ 성분 관시는 이처럼 단순히 교환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쌍방의 만족도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다. 물론 ‘도구’ 성분의 관시 역시 ‘교환’ 행위에 더욱 집중하고 있으므로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관시에 비해 의무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감정’ 성분의 관시는 상호 간 교류를 하며 자발적으로 감정을 나누고, 이 과정에서 느끼는 쌍방의 친밀도를 일컫는다. 정리하자면 ‘기유’, ‘도구’, ‘감정’이란 관시의 각 유형들은 각기 의무성과 만족도, 그리고 친밀도라는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겠다.

감정과 도구라는 분류 외에도, 관시를 다른 방식으로 유형화한 관점도 존재한다. 左斌는 친밀감과 수단화 대신 ‘내재적인 특성’에 따라 관시를 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구성원의 공통분모를 다룬 ‘공원성(共源性)’이다.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각각의 개인이 모여 특정한 관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연계가 되는 관시의 시작점이 필요하다. 이때 시작점은 바로 공통점이자 관계의 근원이 되는 상호간의 공통분모, 즉 ‘공원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누적성’이다. 관시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수립되는

15) 강진석, 「중국인 ‘관시(關係)’의 구성요소와 困境사례 연구」, 『中國研究』 제37권, 2006, p.262.

관계가 아니다. 지속적인 왕래가 있을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되며, 이는 체면과 관시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만남이 누적되어 관시를 형성하고, 관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단계성’이다. 앞서 관시의 특성으로 교환성을 말한 바 있다. 관시는 구성원이 상호 간 은혜를 주고받으며 친밀감이 점차 강화되는 성질을 가진다. 또한 관시는 공식적인 조직에서의 관계라기보다 사적인 만남에 기초하므로 만남의 성격에 따라 친밀도 또한 각자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따라 관시는 친밀도의 정도를 ‘좋은 관계’, ‘보통 관계’, ‘나쁜 관계’ 등으로 분류하여 유형화 된다. 네 번째는 ‘변동성’이다. 장기적인 지속성을 지니는 만큼, 관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혹은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변동을 거듭한다.¹⁶⁾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왔을수록 그 가치가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左 巖의 분류법은 관시의 종류를 말하기보다 관시가 가진 자체적인 속성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관시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을 밝히는 것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관시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고 관시를 분류할 수 있는 기존 학자들의 여러 관점들을 검토하였다. 황광국과 양중방은 ‘감정’과 ‘도구’라는 면에서 관시를 분석하여 상호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관시와, 교환 행위에 중점을 두어 일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관시를 분류하였다. 이때 자원분배의 심리상태에 따라 관시를 분류한 황광국은 ‘혼합성 관시’를 제시하여 인간의 이중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하였고, 이를 통해 때로는 모순될 수 있는 관시 유형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양중방은 ‘기유’ 성분의 관시를 제시하여 선천적으로 해당 관계에 놓이게 되는 관시 유형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유형과 달리 강한 의무감이 발생하는 관시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좌빈의 분류 기준에서는 관시 자체가 가진 단계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고, 관시를 이루는 관계 상태에 대해 세부적인 유형을 나눌 수 있었다.

2. 『삼국지연의』 시대 속의 관시

나관중이 엮은 소설 『삼국지연의』의 시대적 배경은 삼국시대가 형성되기 전, 후한 184년 황색 두건을 두른 농민들이 봉기하여 난을 일으킨 시기부터 위·촉·오가 세력을 다투고 촉한이 결국 위에게 통합되며, 280년 신홍의 진(晉)나라가 남은 오나라를 통합하기까지의 대략 100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소설화한 것은 원말·명초의 나관중(羅貫中)으로, 이야기의 본 무대가 되는 시대와 작품이 집필된 시기사이에는 까마득한 차이가 존재하나 화본, 강창 등의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삼국이야기는 그 기록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사람에서 사람의 입으로, 또는 사람의 글에서 또 다른 글로 전승되며 『삼국지연의』 속 인물들은 각기 독특한 인물 형상을 띠게 되었고, 이러한 전형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래되어 새로운 텍스트, 영상, 또는 게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의 인물들이 계속해서 변화를 겪어온 것과 달리, 『삼국지연의』 속의 시대 상황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 그대로 이어져 왔다. 물론 진수의 『삼국지』처럼 정사가 아닌 한, 『삼국지연의』의 기록이 완벽한 역사 상황을 그대로 서술했다고는 할 수 없

16) 위의 논문, pp.266-267.

지만, 역사 소설의 한 종류로서 『삼국지연의』에는 점차 쇠퇴하던 한나라의 모습과 이에 고통 받은 백성들의 모습, 어지러웠던 난세와 인재들이 자리를 찾아 헤메던 전체적인 시대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혼란한 세대가 지속될 때, 사람 사이의 관계망은 더욱 복잡한 성향을 띠며 다양한 층위의 관계로 분화된다. 사회적 구조가 안정된 치세에는 정해진 사회적 질서에 따라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일정한 판시 관계가 나타나지만, 이러한 구조가 무너지는 쇠퇴기 혹은 전시에는 개개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는 판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국지연의』에서 나타나는 시대적인 배경을 살핀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판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삼국지연의』에서 핵심적인 시대적 상황은 크게 ‘난세’, ‘한실의 권위’, ‘능력본위 사회’의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1) 난세

먼저, ‘난세’이다. 황건적의 난이 발생하기 1세기 전부터 한나라에서는 이미 쇠락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특히 환관들과 외척이 정치적인 힘을 얻으며 조정의 혼란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사대부들을 부른 일명 ‘정류(淸流)’와 부패한 환관을 일컫는 ‘탁류(濁流)’의 대립이 격화되며 정치는 점차 망가졌고 백성들은 비탄에 빠졌다. 후한에서 이처럼 환관이 정치에 개입하게 된 원인 중 하나를 살펴보면 미성년 황제의 재위를 말 할 수 있다.

영제(寧帝)는 후한 12대 황제로, 12살의 나이에 즉위했으며 통치의 시작부터 환관들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에서 비롯되었다. 영제가 등극하고, 정권이 교체되던 상황에서 환관세력은 자신들의 세력 존립에 위협을 받아 어린 황제의 미숙함을 이용해 권세를 쥐었다. 황제의 신임을 손에 넣은 환관 세력은 환관제도 자체를 철폐하고자 하던 두무(竇武)와 진번(陳蕃)을 제거하며 반대파를 물리치는 데 성공하였고, 영제의 신임에 기대어 장기간 환관정치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166년부터 진행된 당고(黨錮)로 인해 환관에게 반대하던 세력들은 이미 대거 제압되었기 때문에, 168년 이래로는 환관들의 통제 아래 관직자들이 선발되었다.¹⁷⁾ 이에 따라 주요 고위직 역시 환관들의 노선과 비위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고대 중국에서 관료를 선발하던 제도인 찰거(察舉) 제도를 살펴보면, 혼란스러운 당시 시대상 속에서 만연하던 사회적 연결망, 판시의 모습이 더욱 잘 드러난다. 文帝에 의해 최초로 실시된 찰거제도는 지방의 유력자가 관리를 추천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중국 고대의 선관제도이다. 후한에서도 역시 찰거제도를 통해 관리를 선발했으며, 이때 관리로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향촌 내에서 인물평론, 즉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이 자체로도 찰거제도 내에는 공동체 내의 판시 관계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난세에 접어들어 후한에서는 사적인 판시 관계의 특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 전한과 후한의 찰거 항목을 살펴보면, 전한과 후한 모두 총 18개(孝廉, 賢良方正, 賢良, 方正, 方正直言, 有道, 敦樸, 茂才, 治劇, 文學, 文學高第, 賢良文學, 高第, 明經, 儒術, 尤異, 質樸·敦厚·遜讓·有行義, 敦樸·遜讓·有行義)의 찰거 항목을 사용하였다.¹⁸⁾ 후한 시기의 찰거에 대해 조사한 閔厚基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항목들을 각각 ‘인

17) 손태창, 「로마와 중국 후한의 비교: 황제의 나이와 환관들의 정치적 개입의 관계」, 『서양고대사연구』 제40권, 2015, p.154.

18) 민후기, 「後漢시기 察舉 관료의 출신지와 任官」, 『동아시아고대학』 제54권, 2019, p.432.

성' 과 '능력' 의 2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표 1> 前漢과 後漢 察舉 항목과 사례의 '인성', '능력'에 따른 분류표

출처: 閔厚基, 「後漢시기 察舉 관료의 출신지와 任官」

	인성								능력										
찰거항목	孝廉	賢良方正	賢良	方正	方正直言	有道	敦樸	質樸·敦厚·遜讓·有行義	敦樸·遜讓·有行義	茂才	治劇	文學	文學高第	賢良文學	高第	明經	儒術	尤異	
前漢	54건(54.3%)									42건(45.7%)									92건
後漢	301건(77.8%)									86건(22.2%)									387건

위의 표를 통해 전한과 후한의 찰거 항목 중 인성과 능력이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볼 수 있다. 표에 따르면 인성과 능력 비율이 전한에서는 인성 54.3%, 능력 45.7%의 양상을 보이는 것에 반해, 후한에서는 인성 77.8%, 능력 22.2%의 비율로 나타난다. 또한 전한에서 후한으로 갈수록 찰거를 통한 등용 건수도 92건에서 387건으로 비약적인 증가폭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찰거를 통한 관리 선발에는 위에서 나타난 18개의 항목에서 볼 수 있듯 기준으로서 정해진 지표가 있었으나, 한나라 말기로 향하며 그 기준이 비교적 모호한 인성측면의 평가가 더욱 잦게 사용되었다. 이때 인성이란 항목이 곧 향촌 내에서 평가한 후보자의 입지, 즉 체면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후한에서 향촌을 중심으로 한 판시 관계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찰거 내에서도 인성과 관련된 항목으로 관리가 선발된 횟수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당시 판시가 사회 내에서 통용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편, 혼란스러웠던 후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작용한다. '능력'은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라기보다 개인의 객관적인 실력, 개인이 가진 솜씨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명확한 기준을 뜻한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란 곧 강력한 규율, 이를 통제하는 왕권과도 결부되는 요소이다. 안정된 정치적 상황에서는 확고한 체계에 따라 명확한 절차를 밟으며 관리자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혼란한 시대에서는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관리하거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전한에서 54건에 불과했던 인성에 따른 찰거제도 등용 건수가 후한에 가서는 약 6배인 301건에 달했다는 사실은 쇠퇴하던 후한 말기의 혼란스러운 정치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삼국지연의』의 초반 무대가 되는 후한 말기에 어지러운 정치상황이 만연하였고, 특히 권세를 입은 환관들에 의해 정치 공동체가 의도적으로 형성되는 등 도구적인 판시 관계가 발생했다. 특히 후한에서 찰거제도를 통해 선발된 찰거인들의 상당수가 모호한 기준인 '인성'에 따라 등용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당시 향촌을 기점으로 사회적 평가, 체면이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는 곧 판시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후한 말기로 향할수록 점차 증가한 찰거 건수를 통해서 혼란했던 정치·사회상을 유추하였고, 약화된 왕권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판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한실의 권위

『삼국지연의』 시대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한실의 권위’이다. 비록 한나라가 내부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하더라도, 한실의 권위는 삼국시대 초기까지 상당히 인정되는 분위기였다. 동탁과 이각(李傕), 궤사(郭汜), 조조(曹操)와 같은 중앙 군벌들이 때로는 황제를 폐하거나 세우기도 하고, 황제를 능멸하였더라도 한실은 천자가 있는 왕실로서 그 정통성이 인정되었으므로 제후들에게 여전히 호령을 할 수 있었다.¹⁹⁾ 제후들은 천자를 받들어서서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의 세력을 견제하되, 한실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삼국지연의』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맺은 인적 네트워크 변화를 분석한 논문에는 따르면, 『삼국지연의』가 기반으로 하는 시기를 4기로 분류하여 제 1기를 환제의 즉위부터 조조가 패권을 차지하기까지의 30년, 제 2기를 조비의 위 건국 15년, 제 3기는 제갈량의 사망까지 15년, 제 4기를 위 멸망 302년까지로 나누고 있다.²⁰⁾ 이때, 제 1기가 바로 삼국시대의 시작이 되는 시기이자 한나라 왕실이 존재하던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나라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다. 조조와 원소, 유비, 동탁, 헌제 등의 다양한 인물들은 한나라를 다시 부흥하려는 세력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진 세력으로 나뉘면서 양자 간 성향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한나라 황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한실을 중심으로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비가 조조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 장면에서도 한실을 중심으로 둘의 조우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비는 한나라에 창렬한 황건적을 토벌하여, 위로는 나라를 구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탁군의 군사들을 모아 스승 노식에게 향했다. 광종(廣宗)에 이르러 유비는 노식과 조우하고, 노식이 한나라 천자에게 청하여 데려온 인재 원소(袁紹)를 만나기에 이른다. 또한 노식의 명에 따라 영천(潁川)으로 향하던 도중에는 당시 한의 기도위(騎都尉) 관직을 겸하던 조조를 만나게 되었다. 이처럼 이들은 한나라의 명령에 의해, 또는 범람하는 위협으로부터 한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저마다의 세력을 키우고 필요에 따라 서로 접촉하였다. 나아가, 영제 사후에 동탁이 소제를 폐위하고, 진류왕을 추대하며 황제 폐립을 주도하자 천하의 제후들이 모여 나라를 어지럽히는 동탁을 치고자 군사들을 일으켰다. 이때 조조, 원술, 공손찬, 손견, 원소, 왕광 등의 제후들과 유비, 관우, 장비의 의형제가 모여 역적 동탁을 물리치고 대의(大義)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맹주로 추대된 원소가 읽은 맹약의 글을 보면, 한실이 힘을 잃은 틈을 타 동탁이 천자를 능멸하고 감히 폐립을 좌우하여 한나라를 도탄에 빠트리는 역적질을 하고 있으므로, 제후들은 한실의 신하된 자로서 절의를 지켜 역적을 처단하자는 의도의 동맹군을 선포하고 있다²¹⁾. 이 역시 한실의 권위를 중심으로 공통된 목적 하에 관시 관계를 형성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동탁을 처단한 후, 관점 차이로 인해 제후들이 각자의 길을 향하게 되었더라도 한실을 바탕으로 형성

19) 최명, 「『삼국지연의』의 정치, 전략론: 서설」, 『韓國 政治 研究』 제10권 1호, 2001, p.216.

20) 이윤경 외, 「소설 삼국지 등장인물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4호, 2009, p.366.

21) “한실(漢室)이 불행하여 황실의 기강과 법통을 잃으니, 역적 동탁이 그 틈을 타 지존(至尊)을 해하고 백성을 학대한 지 이미 오래다. 이에 원소 등은 나라까지 잃게 됨을 두려워하며 널리 의병을 모아 국난(國難)에 대처하려 한다. 우리 동맹군은 마음을 합치고 힘을 다하여 신하된 자의 절의를 지키고 결코 두 가지 뜻을 품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 맹세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 목숨을 떨어뜨리고, 남겨 기쁨이 없으니라, 황천(皇天) 후토(后土)와 조종(祖宗)의 밝은 명령이세여, 이 뜻을 굽어 살피소서 ” (이문열, 『이문열의 삼국지 2』, 민음사, 2003, p.24.)

되었던 판시 관계는 장기간 유지되면서 또 다른 동맹을 맺거나, 한 세력이 다른 세력에게 의탁을 하는 명분이자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3) 능력본위의 사회

『삼국지연의』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 마지막 키워드는 ‘능력본위의 사회’이다. 전국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존에 지켜졌던 봉건종법(封建宗法)이 무너지게 되었다. 즉 세습귀족이 몰락하고 각국에서 신분전도 현상, ‘포의장상(布衣將相)’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것이다.²²⁾ 삼국시대에서도 역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여러 세력들이 난립하며 다투던 상황에서 각 세력의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인재를 등용할 필요를 느꼈다. 오래도록 지속된 전쟁 상황,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 출신이란 성분보다는 직접적인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었다. 『삼국지연의』 속의 주요 인물인 관우도 뛰어난 재능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관우 자체의 출신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출중한 무예와 남다른 의리로 헌제에게서 한수정후(漢壽亭侯)의 벼슬을 얻을 수 있었고, 유비의 세력 하에서도 오호대장(五虎大將)의 일원으로 고위 직위를 누릴 수 있었다.

뛰어난 지략으로 『삼국지연의』에서 촉의 세력을 넓히는 데에 가장 큰 일조를 했던 제갈공명 역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발되었던 것이 아니며,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통해 등용되었던 인물이다. 복룡(伏龍)으로 불리던 공명 외에도 유비는 봉추(鳳雛) 방통을 얻어 경제의 인재들을 세력 하에 놓을 수 있었다. 이때 공명과 방통의 등용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바로 채용과정에 타인의 추천이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판시의 특징 중 하나로 확장성과 양도성을 말하며 판시를 맺고 있는 한 인물이 다른 인물들을 연결해줄 때, 양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판시 관계가 더욱 넓어진다고 하였다. 이때 서로를 연결해준 인물은 판시의 중개인 역할을 수행한다. 공명의 경우, 공명의 친구이자 유비의 군사였던 서서(徐庶)가 둘을 연결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였다. 유비를 섬기고 있던 서서는 조조의 책략으로 모친이 위나라에 잡히자 촉을 떠나면서 유비에게 공명을 천거했다. 이때 공명을 ‘잠자고 있는 용’, ‘臥龍’으로 일컬어 공명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으며, 그의 재능에 대한 신뢰와 친구 관계라는 친분을 바탕으로 유비에게 인재를 연결해주었다. 유비가 서서와 쌓았던 판시 관계가 공명을 천거하는 계기이자 그의 재능에 대한 신뢰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방통의 사례 역시 능력본위의 사회를 여실히 드러낸다. 방통이 유비의 휘하로 들어오게 된 후, 방통은 뇌양현의 현령 지위를 맡아 업무를 보았다. 이때 『삼국지연의』에서는 작은 마을의 지방관 역할에 만족하지 못한 방통이 고의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모지 않았고, 이를 문책하기 위해 장비가 파견되어 방통을 찾아간다. 장비가 방통의 태만을 꾸짖자 방통은 장비의 눈앞에서 밀린 사안들을 순식간에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방통의 능력을 목도한 장비는 대경하였고 방통은 그때가 되어서야 노숙이 써주었던 추천서를 공개한다. 일전에 오나라의 장수 노숙과 방통이 조우했을 때 노숙은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방통은 사방 백리만을 다스릴 재주가 아니므로 중요하고 특별한 임무를 맡겨야 비로소 그 재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쓴 바가 있었다. 더불어 공명까지 방통을 추천하는 입장을 유비에게 밝혔고, 이에 따라 방통은 그가 발휘한 재능과 그 재능을 보증하는 타인들의 추천에 힘입어 공명과 같은 군사중랑장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방통은 적벽대전에서 화공으로 조조군을 후퇴시키고 대승을 얻는 데에 크게 일조하며 공명과 함께 뛰어난 능력을

22) 최명, 「『삼국지연의』의 정치, 전략론: 서설」, 『韓國 政治 研究』 제10권 1호, 2001, p.218.

발휘할 수 있었다.

이처럼 『삼국지연의』의 시대상황 속에서 각 세력의 장들은 인재를 얻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능력본위의 사회는 출신에 관계없이 재능이 뛰어난 인물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 삼국이 경쟁하도록 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인재를 추천하는 중개인이 여러 인물들 간에 걸쳐있는 판사의 중심인물이 되어 능력을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리하자면 『삼국지연의』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보편적인 판사 사례는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었다. 환관들이 정치에 무분별하게 개입하던 ‘난세’에 그들의 구미에 따라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하여 관리들을 동용하게 되면서 나타난 판사와 ‘한실의 권위’가 유지되던 시기에 제후들이 한실을 중심으로 모인 후 동맹을 형성하면서 나타난 판사, 그리고 ‘능력본위의 사회’에 따라 뛰어난 인재를 천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의 추천으로 판사가 확장된 사례이다. 『삼국지연의』의 혼란한 시대적 배경이 여러 유형의 판사를 발생시킨 바탕이 된 것이다.

3. 『삼국지연의』 주요 인물 간 나타난 판사

『삼국지연의』에서 가장 대조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소설 삼국지를 읽은 사람들 중 대다수가 유비와 조조를 말할 것이다. 유비가 인정을 중시하여 덕과 선의, 명분을 기준점으로 삼는 인물이라면 조조는 합리성을 중시하여 상황에 맞는 결단을 내리는 실리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삼국지연의』가 촉한정통론에 입각해 집필되었던 까닭에 유비가 선량한 현인이자 군주상으로 표현된 반면 조조는 영웅이지만 전형적인 간웅으로 표현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유비와 조조의 인물상으로 확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며 조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오늘날, 『삼국지연의』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선인과 악인이라는 고정적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해석²³⁾되고 있다. 그렇다면 유비와 조조의 인물 개성이 잘 드러나는 행동과 인간관계를 ‘판사’라는 기준에 따라 분석했을 때에도 오늘날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4장에서는 『삼국지연의』의 주요 인물을 상반된 성격의 유비와 조조로 분류한 다음, 이들의 행보에서 드러나는 사례에서 판사의 유형을 분석한 후 비교하고자 한다.

1) 유비의 판사 사례

지금의 허베이성인 탁군 탁현 출신의 유비는 한나라 황손의 먼 친척으로서,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쫓신을 삼아 팔거나 돛자리를 짜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한 말이라는 혼란한 시대에 유비는 천하호걸들과 교류하길 즐겼으며 관우, 장비, 조운, 제갈량 등의 유능한 인재들을 휘하에 두어 당대 중원의 지배자였던 조조와 싸우며 촉한을 건국했다. 돛자리와 쫓신을 팔던 그의 출신을 고려해보건대, 평범한 사람과 다른 없던 유비가 천하의 장수들과 만나 촉한을 세우기까지의 과정은 그 자체로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을 법한 영웅담처럼 보인다. 근거세력도 없으며 뛰어난 무예 솜씨도 가지지 못한 유비

23) 신정원 외, 「유비(劉備)와 조조(曹操)의 리더십 비교: “자질과 역량”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1권 2호, 2020, p.272.

가 『삼국지연의』 속의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까닭이 과연 무엇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유비 역시 비범한 구석을 가졌던 당대의 천하호걸처럼 유독 뛰어난 분야가 있었다. 출중한 무예, 결단력, 인적관리능력 등의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물들 사이에서도 유비가 빛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인망’을 쌓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돛자리를 팔고 곤궁한 형편을 겪었던 유비는 평범한 백성의 삶 그 자체를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민심을 이해할 수 있었고, 백성들을 위하고자 노력했다. 천자에게 충성을 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세력권을 넓히기 위해, 대의를 위해 군사를 모은 사람들과 달리 유비는 황건적에 고통 받는 백성을 구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은 것에서 군사를 꾸리기 시작하였다. 유비의 남다른 의기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존경하고 경모하게끔 만들었으므로 유비의 인망에 감복한 인재들이 모여든 것도 놀랄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인품을 바탕으로 유비는 다양한 인재들과 사회적 관계, 즉 판시를 맺을 수 있었고 이는 촉을 건국하는 데에 큰 역할이 되었던 것이다.

유비가 맺은 대표적인 판시의 사례로는 바로 유비, 관우, 장비가 모여 의형제를 맺은 ‘도원결의(桃園結義)’라고 할 수 있다.

『삼국지연의』 제 1회는 황건적에 맞서 싸울 관군을 모집하는 방을 보며 탄식하는 유비와, 그의 모습을 발견한 장비가 함께 술집에 가는 것을 시작으로 인물들의 만남을 나타내고 있다. 술집에서 유비와 장비는 의용군에 지원하려고 하던 관우를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셋의 뜻이 동일함을 알아차린 후, 장비의 복숭아밭에 가서 의형제를 맺게 된다. 이때 복숭아밭에서 맺은 결약을 바로 ‘도원결의’라고 한다. 그 내용은 유비, 장비, 관우가 비록 성씨는 다르더라도 의형제를 맺어, 같은 날 태어나진 않았더라도, 한날한시에 죽을 것을 약속하여 큰 뜻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이처럼 생면부지의 세 사람은 도원결의를 계기로 서로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의형제의 사이가 되었다. 『삼국지연의』의 첫 장에서 등장한 도원결의는 삼국지 전체를 관통하는 세 호걸들의 만남이자 삼국지의 시초를 뜻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혼란스러운 시대상 속에서 반환계와 같은 계책이 만연했으나 이 세 인물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신념을 관철해나갈 수 있었다. 이때 이들이 맺은 의형제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일종의 ‘판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살펴본 판시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도원결의’에서의 판시는 감정의 면이 두드러지는 정감형 판시로 분류할 수 있다. 도원결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형제’,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친다.’, ‘위험할 때 서로를 돕는다.’ 등의 서약이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위로는 나라에 갇고, 아래로는 못 사람들을 평안하게 한다.’는 목적도 발견할 수 있지만, 세 사람이 행동을 함께하여 의형제를 맺는다는 목적이 더욱 강하므로 이러한 종류의 관계는 자발적으로 감정을 나누는 정감형 판시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원결의를 통해 이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상호간의 신뢰와 소속감, 관계 그 자체이다. 이들의 목적은 세 사람이 함께 공통된 뜻을 이루는 것이므로 서로를 도구적 목적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없다. 의형제라는 판시에서 이들을 움직이는 원리는 서로에 대한 구제이며, 여기에는 외부적인 이익이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를 돕고 구제하는 것에는 철저한 동가교환의 원칙 대신 ‘의리’라는 개념이 기저에 깔려있는데, ‘의리’라는 개념은 서로에게 증여하는 인정이 교환을 거듭할수록 점차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삼국지연의』의 첫 장에서 시작된 도원결의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들이 맺은 판시 속에 존재하

는 ‘의리’에 원인을 두고 있다. 의리를 기반으로 형성된 판시는 점차 커지는 인정을 주고 받으며 지속되므로 도구적 판시와 달리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양중방의 분류 기준에 따르더라도 도원결의는 감정 성분의 판시에 속한다. 이들의 관계는 대가를 교환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 상호 간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나누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러한 의형제의 관계는 친밀감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 성분의 판시만이 아니라 기유 성분도 일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도원결의로써 맺은 것은 막역한 친구의 관계가 아닌, 의형제의 관계였다. 만약 이들이 단순히 친구 관계를 맺었다라면 감정 성분의 판시 특성상 친밀감의 효과만을 낳았을 것이다. 하지만 의형제와 같이 친구 이상을 넘어서 가족의 범주 안에 위치하는 기유 성분의 판시에서는 ‘의무’라는 효과까지 나타나게 된다. 그 일례로 도원결의의 내용 중에는 ‘한날한시에 죽는다.’, ‘의와 은혜를 저버리는 자는 하늘이 벌하여 죽을 것이다.’와 같은 의무적 서약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동시에 죽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기보다 서로를 위해서라면 죽음조차 불사하는 의형제의 관계와 그 속에서 지켜야 할 의리, 서로를 향한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일 것이다. 즉 의형제의 관계를 맺으며 이들은 형제로써 지켜야 할 의무성을 서로 부여하게 되었고, 이러한 의무성에 근거해 서로를 배신하지 않고 맹세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해석된다.

물론 유비, 관우, 장비의 판시가 도원결의를 맺은 시점에서 완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도원결의는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개인이 모여 연계를 형성하는 판시의 시작점에 가깝다. 세 사람이 주점에서 대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공통분모로 삼아 복숭아밭에서 형제의 연을 맺은 것이 관계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명시적인 맹세를 기점으로 함께 동고동락하며 누적된 지속적인 왕래가 판시의 친밀감과 신뢰를 공고히 다지는 역할이 되었다. 또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되었기에 그들의 판시는 더욱 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유비가 맺은 또 다른 판시의 사례로는 ‘삼고초려’가 있다. 서서의 천거에 따라 공명을 등용하고자 세 번 그를 찾아갔다는 유비의 일화는 앞서 중개자에 의한 판시의 확장 사례에 속한다고 분석한 바 있었다. 이를 유비와 공명의 사적인 입장에서 분석한다면 도원결의에서와는 다른 유형의 판시를 발견할 수 있다.

서서의 추천에 따라 공명을 등용하고자 한 것은 촉의 세력을 강성하게 할 인재를 찾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는 유비 자신이 원하는 목적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은 수단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단순히 유비와 공명간의 관계를 도구형 판시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유비가 공명을 찾아오기까지의 삼고초려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방문에서는 공명의 출타 중이라 만나지 못하였고 두 번째 역시 그러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되어서야 휴식 중에 있던 공명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던 유비는 공명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마침내 공명과 접견할 수 있었다.²⁴⁾ 물론 어떠한 사람을 만나 판시를 맺고자 할 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을 얼마나 들었는가의 문제가 판시의 목적 자체를 바꾸진 않는다. 삼고초려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유비와 공명의 관계는 자신에게 필요한 인재와, 자신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진영의 지도자간의 도구적인 관계였다. 하지만 삼고초려 역시 도원결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의 시작점 역할을 했을 뿐이며, 유비가 공명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신뢰와 친밀감이 기존의 도구형 판시를 변화시키게 되었다.

24) 홍순호, 「특집: 삼국지 인물론 ; 삼국연의적(三國演義的) 제갈량(諸葛亮)의 실(實)과 허(虛)」, 『人文科學』 제 78권, 1997, p.29.

군신관계에 있던 유비와 공명은 상호간에 지속적인 왕래가 가능했고, 특히 유비의 전폭적인 신뢰 아래 공명 또한 유비에 대한 충절을 지켜나갔다. 장기간 유지된 유비와 공명 간의 관시는 공명이 보여주는 뛰어난 지략과 신하로서의 충절, 유비가 가진 인덕과 부하를 향한 신뢰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들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예로 유비가 죽기 전 공명에게 남긴 유언이 있다. 이릉대전과 계속되는 전투에서 패배를 겪으며 백제성에 주둔한 유비는 223년 사망하기 전 공명에게 그의 재능이 위나라 조비의 10배에 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반드시 대업을 이룰 재목임을 알기에 유선이 도울 만하면 돕고 만약 유선이 재능이 없다면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²⁵⁾ 이때 ‘그대 마음대로 하라’라는 대목은 곧 자신의 아들인 유선 대신 공명이 황제가 되어도 좋다는 뜻으로, 공명에 대한 유비의 두터운 신뢰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공명은 유선을 황제로 받들고 227년 북벌을 감행하는 것으로 유비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 공명은 유비가 이미 사자가 되었음에도 유비의 명령을 받들어 한 실을 부흥시키고 옛 도움으로 돌아가고자 북벌을 결정했고, 북벌을 위해 떠나기 직전 출사표를 남기며 어린 유선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과 인재를 등용하는 길에 관해 아뢰었다.²⁶⁾ 공명의 이러한 행동은 황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재능과 능력을 가진 당대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주변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유비에 대해 충심을 지킨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유비와 공명의 관시는 도구적인 목적에서 시작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정이 축적되며 정감형 관시로 변화된 사례에 가깝다. 즉 관시가 형성된 시점에서는 도구형 관시, 상호 왕래를 통해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는 감정과 도구형 관시가 섞인 혼합형 관시, 종국에는 정감형 관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조조의 관시 사례

『삼국지연의』에서 조조는 유비의 상대적인 대립항으로서 묘사된다. ‘영웅을 논하다(論英雄)’ 제 21회에서 조조는 당대에 현존하는 쟁쟁한 군벌들을 모두 부정하는 대신, 자신과 유비를 천하의 두 영웅(“今天下英雄, 唯使君與操耳”)이라 명명한다.²⁷⁾ 즉 유비와 자신은 공통적으로 천하를 포용할 포부를 가지고 있는 영웅이라고 판단하되, 유비가 의로우며 온화한 영웅이라면 조조 자신은 실리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성격을 띤 영웅임을 알았던 것이다. 욕망 충족을 위해 도덕적인 고려 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조조의 모습은 인(仁)을 중시하는 유비의 모습에 대조되며 이기적인 인물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간용으로 묘사되는 조조에게서도 유비와 못지않게 다양한 관시 사례가 나타난다. 조조의 목표지향적인 성향은 천하통일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조가 다양한 인재들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실리적인 성격은 인재의 과거와 인품에 관계없이 자신의 휘하에 두며 관시를 맺도록 하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조가 건안 15년에 발표한 구현령에 따르면, ‘천하의 인재는 위정자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지 않는다면 쉬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인재 등용에 있어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점이 있더라도 여하튼 등용해야 한다.’²⁸⁾는 뜻

25) 송재소, 「출정길 오르기 전 나라와 군주를 걱정하다… 유비를 향한 제갈량의 눈물 어린 충정」, 『CHINDIA Plus』 제 122권, 2017, p.37.

26) 정시구, 「『삼국지』에서의 제갈량의 조직혁신 리더십」, 『韓國行政史學誌』 제 18권, 2006, p.195.

27) 이소영 외, 「삼국연의 『三國演義』 다시 읽기(1) - 조조(曹操)와 유비(劉備), 삼국(三國) 이야기의 퇴적층에 새겨진 사회적 인식의 역사」, 『中國語文學誌』 제 21권, 2006, p.170.

28) 신정원 외, 「유비(劉備)와 조조(曹操)의 리더십 비교: “자질과 역량”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1권 2호, 2020, p.278.

을 밝히고 있다. 이때 조조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점'의 예시로 청렴하지 않은 것, 충성심이 증명되지 않은 것, 또는 신분이 낮다는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한다. 대다수의 지도자가 부하의 충성심과 청렴함을 관리 등용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꼽는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요소들을 사소한 결점이라고 묘사한 조조는 철저한 능력중심주의에 따라 인재를 등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조의 판시는 인재등용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다. 조조와 원소가 겨룬 관도대전(官渡大轉)이 일어나기 전, 원소의 휘하에 있던 진림(陳琳)은 조조를 규탄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조조 일가의 죄목을 낱낱이 비판하였다. 그러나 전쟁 후 원소가 대패하고 원상까지 격파되자 진림은 조조에게 투항하였다. 자신도 모자라 조상의 대까지 옥보인 대상이 투항을 해왔을 때,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를 처벌할 것이다. 그러나 조조는 진림의 격문에서 발견한 문학적인 재능과 수려한 문장력에 감탄하며 문서 작성의 관직으로 등용하기에 이른다. 조조에게 충성심이란 인재 등용시의 부차적인 요소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이었던 셈이다. 이외에도 조조는 순욱을 등용한 바가 있는데, 순욱 역시 원소의 사람이었다. 원소가 순욱을 크게 예우하였음에도 순욱이 원소를 버리고 자신에게 찾아오자 조조는 그를 마중하며 우수한 참모를 얻게 되었다며 크게 기뻐하였다. 이에 순욱은 20여년간 조조를 보좌해 위가 중원의 패권을 얻는 데 크게 공헌하며 조조의 등용에 보답하였다.

이러한 사례로 보았을 때, 철저히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며 조조가 형성한 판시는 도구형 판시로 분류해볼 수 있다. 조조는 자신의 목적인 천하통일을 이루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인재들을 등용하였다. 조조에게 있어 이들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으며, 그들 사이의 관계 역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다. 충성심과 친밀감의 감정적인 면은 조조의 판시에 있어 필수 조건이 아니었으며 목적에 해당하지도 않았다. 인재에게 도덕적인 결함이 있더라도 재능을 믿고 등용하였으므로, 등용된 자는 그 은혜에 상응하는 만큼의 능력 발휘를 보여주어야 했다. 즉 조조의 판시는 철저한 등가교환의 원칙에 입각하여 형성되고 유지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조는 세력의 확대를 얻고 상대방은 높은 직위와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며 양자 모두 만족감을 교환하였으므로 양중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조조의 판시는 도구 성분의 판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조의 또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판시의 사례는 '천리독행(千里獨行)', '오관참육장(五關斬六將)'이라는 말이 유래된 관우와의 관계에서 드러난다.²⁹⁾ 『삼국지연의』 제 25회부터 제 27회에서는 조조에게 잡힌 관우가 포로생활을 하다 유비의 소식을 듣고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25회에서 조조에게 포위를 당한 관우는 유비의 행방을 알게 되는 즉시 풀어줄 것을 조건으로 들어 조조에게 투항을 하게 되었다. 이에 조조는 관우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관우가 머무는 기간 동안 융숭한 대접을 하며 출중한 재능을 가진 관우를 회유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제 26회에서 관우는 유비의 소식을 듣게 되자 조조로부터 하사받은 모든 물질적 풍요를 마다하였고, 조조는 관우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알고는 관우를 친히 송별해주었다. 관우가 유비를 찾기 위해 여남(汝南)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섯 개의 관문을 통과하던 중 여섯 명의 장수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으나, 조조는 일전에 관우와 했던 약조를 들어 그를 뒤쫓지 않고 관우가 가도록 길을 터주라는 명령을 내린다. 관우의 행동을 탓하기보다 관우를 설득하지 못한 자신의 능력을 탓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었던 관우가 편히 의탁할 수 있었던 것은 관우의 능력을 흠모했던 조조의 너그러움 덕분이며, 조조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관우가 조조의 장수 여섯

29) 남덕현, 「『삼국연의(三國演義)』 關羽형상의 의미」, 『중국학』 제 45권, 2013, p.108.

을 죽였음에도 조조가 그를 뒤쫓아 처벌하지 않은 것 역시 조조가 관우에게 인정을 베푼 것과 같다. 관우가 조조에게 투항한 이래로 조조의 덕을 보게 되면서 상호 간에는 친밀감의 여부와 관계없이 판시가 형성되었고, 조조의 물질적인 지원과 호의를 베푼 것으로 인해 관우는 조조에게 판시의 대가를 지급해야 할 책임, 즉 빚을 지게 되었다. 조조와 관우의 판시는 훗날 관우가 위기에 처한 조조를 화용도에서 놓아주며 대가성을 충족하였고 서로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

관우가 조조에게 의탁하며 형성된 판시는 좋은 장수를 얻기 위한 조조의 목적과, 위기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관우의 목적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친밀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정감형 판시가 아닌, 도구형 판시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때 조조와 관우가 각각 위와 촉의 진영에 속하여 적군의 입장이었음에도 판시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판시의 중복성에 따라 설명된다. 판시는 조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이라는 경계를 초월해 조조와 관우 간의 판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관우가 유비에게 항하며 판시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이룰 수 없었고, 친밀감 역시 누적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화용도에서 관우가 조조를 놓아주는 사건으로 조조와 관우의 판시는 대가성을 만족하게 되었으나 유비와 공명의 경우처럼 정감형 판시로는 발전할 수 없었다.

3) 유비와 조조의 판시 유형 비교

『삼국지연의』의 능력 본위의 사회 속에서 유비와 조조는 뛰어난 인재를 얻기 위해 다양한 인물들과 판시를 맺었다. 이때 유비의 판시는 친밀감을 공유하는 정감형 판시와 감정 성분의 판시라고 설명할 수 있고, 조조의 판시는 등가교환의 원칙에 따른 관계의 수단화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다. 도원결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들 모두 도구적 관점에서 판시를 맺기 시작했지만 판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생겼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공통된 시대상황에 따라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재등용’의 판시에도 개인에 따라 그 유형에 차이점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유비가 중시했던 것은 사람 사이의 인(仁)으로, 지도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에 도덕성을 꼽았다면 조조는 지도자의 가치관 부하를 능력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조운이 아들 유선을 구하고 돌아왔을 때, 유비가 자식보다는 자신의 장수를 먼저 염려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유비는 부하를 동료와 같이 생각했으며 군신간의 신뢰와 충정을 중시하였다. 유비와 그의 휘하에 있는 인물들은 공통된 대의명분을 중심으로 모여 비슷한 도덕관을 가진 이들로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그들의 판시는 정감을 매개로 더욱 공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다. 반면, 조조의 경우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준은 재능이었다. 군신관계에 있어 조조에게 충성심은 부수적인 요소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설사 적군에 속했던 인물이라도 등용하길 꺼려하지 않았다. 부하들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인재들을 적제적소에 배치할 수만 있다면 능력 발휘를 최대화하여 결점을 보완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리성을 중시한 조조에게 판시란 감정을 나누는 관계망이라기보다 인재들을 배치하고 관리하는 일종의 도구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랜 기간 결을 나누었던 순욱이 자신을 견제하기 시작하자 빈 그릇을 보내 자살할 것을 종용한 사례에서도 조조가 감정보다는 실익에 따라 인간관계를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중국의 사회관계 모델인 판시의 유형을 분석한 후 판시의 특징을 중점으로 고전 텍스트 『삼국지연의』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나타난 보편적인 판시와 개인적인 차원의 판시에 대해 살펴보았다. 판시는 현대 시대에 접어들며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게 된 개념이지만, 오래된 고전 문학인 『삼국지연의』에서 나타나는 여러 인간관계의 군상을 판시의 측면에서 분석해볼 수 있었다. 이처럼 최근의 개념을 과거의 문학에 적용하여도 위화감 없이 분석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와 현재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오길 희망했으며,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사회를 형성하고 삶을 영위해나갔다.

인간관계의 본질이 사람에게 존재하는 한,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 본고의 2장에서 살펴본 판시의 여러 유형들이 『삼국지연의』 속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서 인간관계 유형의 불변성이 더욱 드러난다. 전쟁이 멎고,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통하며 호의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한다. 십상시가 권력을 잡고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관리를 동용한 것처럼 오늘날 판시와 인맥을 동원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부정적인 사례가 있는가 하면, 동탁에 맞서 제후들이 동맹을 맺은 것처럼 개개인이 모여 단체를 이루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한다. 각 진영의 지도자들이 뛰어난 인재를 얻기 위해 분투하고, 인재들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탐색했던 것처럼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적임자를 스카우트하거나 취업 희망자들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그 상황을 일컫는 용어가 달라질 뿐, 사람들이 상호 관계를 맺는 유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관계인가 판단하는 기준일 것이다. 과거 『삼국지연의』 속에서 유비라는 인물이 도덕적·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으로 표현되었던 것에서 유비가 맺는 정감형, 감정 성분의 판시가 당시 사람들에게 본받을만한 관계라고 생각되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중앙 정부로 인해 고통 받던 백성들이 자신을 구제해주기를 바라는 갈망³⁰⁾ 속에서 이상적인 영웅상을 투영했으며, 그러한 영웅에게 당시의 도덕적인 기준에 따른 인간관계 서사를 붙인 결과로 해석된다. 오늘날 역시 『삼국지연의』 속 유비와 같은 온화한 인물은 구성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조력자적 영웅, 이타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솔직하면서도 이기적인 조조의 인물 형상은 오늘날 사회에서 더욱 흔히 나타나는 인물상이자, 경쟁 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인물상이기도 하다. 즉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였고, 합리성에 따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능력을 중심으로 공정한 처사를 보이는 조조형 인물은 과거와 다른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현재에는 과거보다 더욱 많은 수의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오늘날에는 도구적 판시를 단순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인들은 각각의 인물형상과 인간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삼국지연의』 속에서 드러나는 유비와 조조의 판시 유형 분석은 정감형, 도구형 판시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30) 강태권, 「특집: 삼국지 인물론」; 담론(談論) 삼국연의(三國演義)중의 조조(曹操), 『人文科學』 제 78권, 1997, p.113.

다양한 유형의 관계에 적용하고 유지해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참고문헌

1. 논문

- 강진석, 「중국인 ‘관시(關係)’의 구성요소와 困境사례 연구」, 『中國研究』 제37권, 2006
- 강태권, 「특집: 삼국지 인물론 ; 담론(談論) 삼국연의(三國演義)중의 조조(曹操)」, 『人文科學』 제 78권, 1997
- 김용학, 「한국 사회의 학연: 사회적 자본의 창출에서 인적자본의 역할」,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2003
- 남덕현, 「『삼국연의(三國演義)』 關羽형상의 의미」, 『중국학』 제 45권, 2013
- 민후기, 「後漢시기 察舉 관료의 출신지와 任官」, 『동아시아고대학』 제54권, 2019
- 박상수 외, 「중국 기업인들에 있어서 중국식 사회자본의 역할: 관시(Guanxi)와 신용(Xinyong)을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40권 3호, 2016
- 손태창, 「로마와 중국 후한의 비교: 황제의 나이와 환관들의 정치적 개입의 관계」, 『서양고대사연구』 제40권, 2015
- 송제소, 「출정길 오르기 전 나라와 군주를 걱정하다… 유비를 향한 제갈량의 눈물 어린 충정」, 『CHINDIA Plus』 제 122권, 2017
- 신정원 외, 「유비(劉備)와 조조(曹操)의 리더십 비교: “자질과 역량”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제11권 2호, 2020
- 이소영 외, 「삼국연의 『三國演義』 다시 읽기(1) - 조조(曹操)와 유비(劉備), 삼국(三國) 이야기의 퇴적층에 새겨진 사회적 인식의 역사」, 『中國語文學誌』 제 21권, 2006
- 이윤경 외, 「소설 삼국지 등장인물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4호, 2009
- 정시구, 「『삼국지』에서의 제갈량의 조직혁신 리더십」, 『韓國行政史學誌』 제 18권, 2006
- 정하영, 「중국의 ‘관시’ 문화에 대한 시론」, 『中國學研究』 제0권 27호, 2004
- 조관희, 「삼국지연의 『三國志演義』에서의 류비(劉備)의 인물(人物) 형상(形象)」, 『人文科學』 제78권, 1997
- 조평규, 「중국의 관시(Guanxi, 關係)」, 『철학과 현실』, 제125권, 2020
- 최명, 「『삼국지연의』의 정치, 전략론: 서설」, 『韓國 政治 研究』 제10권 1호, 2001
- 최은영, 「중국 관시(關係)문화의 의미와 그 변용」, 『담론201(Discourse 201)』 제10권 2호, 2007
- 한상수,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론: 정치적 동물로서의 인간」, 『성균관법학』 제19집, 2007
- 홍순효, 「특집: 삼국지 인물론 ; 삼국연의적(三國演義的) 제갈량(諸葛亮)의 실(實)과 허(虛)」, 『人文科學』 제 78권, 1997,
- Xiao Ling Wang, 「‘연줄’과 “관시(關溪)”의 차이 : 한국과 중국의 사회연결망 비교」, 『社會科學研究(Jornal of Social Science) Vol.33 No.2, 2007

2. 단행본

이문열, 『이문열의 삼국지 2』, 민음사, 2003

3. 인터넷 기사

오강돈, 「오강돈의 중국 마케팅 (75) 중국과 러시아 <34>」, 『조선비즈』 2019.07.23,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3/2019072301283.html